

청년, 행정의 중심에 들어오다

민선 6기 광주·전남 지자체
전담부서 신설·조례 제정 등
청년정책 앞다퉀 추진
질 높은 일자리 마련이 관건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중심에 '청년'이 자리하고 있다. 불안정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서 '삼포세대' 'N포세대' '헬조선' 등 수많은 신조어를 탄생시킨 청년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핵심사업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핵심은 '질 높은 일자리' 마련인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각종 청년정책 성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광주시=운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인 2014년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청년 종합실태조사와 기본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구직에서부터 취업과 창업, 청년 부채와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제도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현재 광주시는 경제, 복지, 문화, 참여의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본 예산만 563억원이다.

특히 대부분의 광주시 청년 정책은 청년단체 의견 수렴과 각 부서별 협업, 청년정책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의 청년정책 10대 핵심사업은 ▲광주청년드림사업 ▲광주청년 창업펀드 결성·운영 ▲청년창업 특례보증 ▲구직 청년 교통카드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청년 건강권 보장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쿼터제 ▲2017세계청년축제 ▲청년정책 협치 강화 ▲청년운영공간 교류활동지원 등이다.

10대 핵심사업은 교육, 취업, 결혼으로

극심한 가뭄... 바닥 드러낸 담양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진 25일 담양군 용면 담양호의 수위가 낮아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기별 맞춤형 정책 기반의 첫발을 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청년일자리 발굴사업 등 경제 분야 27개 ▲빛고를 장학재단 운영 등 복지 분야 11개 ▲청년 창의콘텐츠 개발지원 등 문화분야 9개 ▲광주청년센터 활성화 등 참여분야 16개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청년센터 운영, 청년 참여할당제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의 리더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광주시의 청년정책 특징 중 하나다.

이밖에 광주시는 청년들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부채TF를 구성해 지원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2019년 까지 청년주택 100호 공급, 청년창업자 쉐어하우스 운영 등 청년 주거 정책도 마련

하고 있다. 운장현 시장은 "청년의 미래가 광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선 6기의 중심을 청년에 놓고 지난 3년 동안 제도와 기반을 튼튼하게 마련해 왔다"며 "올해는 청년들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지역의 주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민선 6기 가장 큰 과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선정한 전남도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5년 청년발전기본조례를 만들고, 청년발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4개 분야 68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들 계획 가운데 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지도하게 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역 미취업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직접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찾아다니는 '찾아가는 청년 희망버스' 등이 호평을 받고 있다.

4개 분과 98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전남도 청년협의체 '청년의 목소리'가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청년의 생각을 전남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귀어인들을 위해 고흥군과 무안군에 김 7건 589ha, 미역 3건 120ha 등 709ha를 승인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매달 한 차례씩 권역별로 22개 시·군 청년협의체·공무원 합동 청년정책 연찬회를 갖는 등 각 시·군에도 이 같은 청년 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 53명으로 청년협의체 '순천동'을 구성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년센터 '청춘창고'를 운영 중이다. 광양시는 올 청년정책의 우선 과제로 일자리와 결혼·주거문제를 설정하고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대표 김선정 아트선재센터 관장 유력

5개월간 수장 자리가 비어있는 '광주비엔날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정(사진·52) 아트선재센터 관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시와 비엔날레재단측은 문화예술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김 관장을 대표이사 적격자로 판단, 수차례 제안 끝에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25일 현재 김 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사 등 제 절차를 밟고 있다. 비엔날레 이사에게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재단이 최근 연 서면이사회 결과 이사 전원인 김 관장의 이사 등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7월 중 대표이사 선정에 관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참석자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 관장이 대표이사에 오르게 된다.

이화여대 서양화과와 미국 크랜브룩



대학원을 졸업한 김 관장은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커미셔너를 맡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지역 예술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점이 대표이사 선정 추진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 관장은 비엔날레, 문화재단 등에서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광주 예술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며 "또 아트선재센터 관장에 재직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광주비엔날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제안

문대통령,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 물꼬 트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주최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의 영광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며 사실상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가능성이 큰 이슈다. 북한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파견할 의향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포츠 분야에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확률이 높다."

본사 인사

- ▲정후식 : 이사·논설실장
점 기획조정실장
- ▲김일환 : 편집국장
(6월 26일자)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엄마의 학대... 초등학교생의 비애 ▶ 6면

운동주 100주년-참회와 저항 ▶ 18면

김국영 100m 10초13 한국新 ▶ 20면

지속가능발전

환경위기, 경제위기, 양극화위기 등 극복하여
다음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삶을 누릴 수 있는

- ▶ 광주온도 1℃ 낮추기
- ▶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 ▶ 1사1산1하천 가꾸기
- ▶ 물 순환 선도도시 등 참여

광주광역시

